

내게 영광 돌려라

2010. 04. 08. (목)

김은미 (대구 스타교회)

[저녁9:40분경에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지 못함과 더욱 더 주님께 몰두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할 때 받은 말씀입니다.]

사람들 중에는
비장애인인데도 장애인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구나.
눈이 있어도 나를 향해 보지 않고 세상을 향해있으니
눈이 먼 자요.
말을 할 수 있어도 나를 찬양하지 않고
나와 대화하지 않으니 병어리요.
또 팔과 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
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
온몸이 전신마비가 된 자로구나.

너희는 왜 정상인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
자꾸 비 정상인처럼 행동하는 것이냐!
너희의 모든 눈, 코, 입, 몸
늘 나를 향하여야 하지 않겠느냐?
하늘 아버지가 너희를 창조하였는데,
어찌 다른 곳만 보고 다른 것을 더 원하느냐?
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이요.
말을 할 수 있으나 말 못하는 자요.
움직일 수 있으나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이다!
매일매일 내게 영광 돌려야지!
제발 내가 원하는 정상인처럼 살아다오!
늘 나만 생각하며 늘 나를 찬양하며
늘 내게 영광을 돌려야지!
너희는 어찌 세상만 바라보느냐!
그렇게 세상이 종단 말이냐?
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은 것이 세상이다!
그러니 세상이 아닌 나를 위하여 살아라!
세상에 빠져 허우적거리면
사탄의 신부밖에 되지 못한다!
난 그것을 원치 않노라!

나의 신부들이여.
너희는 나의 신부들이니

수준 높은 신부가 되어야하지 않겠느냐?
그러니 나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나만 보아라!
세상은 마약과 같은 것이다.
처음에는 좋으나 계속 빠져 하다보면
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.
그러니 나만 보고 내게만 영광 돌려라!
세상이 아닌 나만 바라보아라.
사랑한다.

너희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노라.